

위구르(回鶻, Uighur)期の 투르판(吐魯番, Turfan) 복식 연구

김 소 현

배화여자대학 전통복식과

A study on the Turfan's costume in the period of Uighur

Kim, Sohyun

Baewha woman's junior college, Dept. of traditional costume
(1999. 3. 17 접수)

Abstract

Ordinarily, hair styles and headclothes show the racial characteristics. Uighur's men had let their long hair hang down their back in many queues. According to the order of estates, men wore double high coronets, three-pointed coronets, fan-like head pieces. Women made their hair up in high, large coiffures, and dropped red ribbons from the headdress. Married women wore the felt headdress.

The type of men's clothes were long caftans which had a round collar, slits on the both sides, and tight sleeves. They tied Chan Die belts, and wore long boots. Women wore long tunics with everted collar which was decorated. Later, the type of women's dress was changed into the long caftan.

Late period of Turfan Uighur, Mongol style had appeared.

Key words: Uighur, long queues, long caftan with tight sleeves, Chan Die belt, long caftan with everted collar; 위구르, 被髮, 筒袖長衣, 鞞帶, 通裙大襦

I. 서 론

타림 분지의 동북쪽에 위치한 투르판(吐魯番, Turfan)은 교통의 요지로서 중국 문화, 서역 문화 및 유목 문화가 교차하던 곳이다. 이 지역에는 시대에 따라 車師, 高昌, 위구르(回鶻, Uighur) 등 문화의 주체가 다른 여러 나라가 섰고, 여러 문화가 융

합된 독특한 문화가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복식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高昌 시기까지의 투르판의 복식 문화는 拙稿¹⁾를 통하여 조명하였고, 이 논문은 그 후속 연구로서 위구르 시기의 투르판의 복식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外蒙古의 셀렝가강을 근거지로 삼고 있던 투르크족의 한 부족인 위구르가 키르키즈(黠戛斯, Kirghiz)에게 쫓겨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일부가 투르판 지역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를 高昌回鶻 또는 西州回鶻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이전에 성립했던 나라와는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 본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특성을 달리하고 복식에 있어서도 다른 면모를 보였다. 코초(Qocho)라고 불리웠던 위구르 시대의 투르판에는 위구르의 복식을 알 수 있는 유적들이 남아 있다. 벽화를 중심으로 위구르 복식의 특색을 알아 보고, 비슷한 시기의 여러 미술 자료와 문헌을 보조 자료로서 참고하고자 한다. 벽화는 베제크릭 석굴에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무르투, 생김, 토욕에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高昌 回鶻의 여름 수도였던 베쉬발리그(北庭) 四大寺 壁畫, 甘州 回鶻의 둔황 벽화에도 위구르인의 복식, 민족적 용모, 기질 등이 잘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고자 한다.

II. 역사적 · 문화적 배경

유목민인 위구르족은 外蒙古의 셸렝가강을 근거지로 삼고 있던 투르크족의 한 부족이다²⁾. 北魏時代(384—534)에는 高車³⁾로 불리웠고, 隋代에는 위구르 또는 오구즈(Oghuz)에 대한 音譯으로 韋紇, 烏護라고 불리웠다. 이 호칭이 唐代에는 回紇, 回鶻, 宋·元代에는 畏吾兒로 변화되었다⁴⁾.

7세기 중엽부터 점차 세력을 얻은 위구르는 744년에 東突厥을 정복하여 알타이 산맥으로부터 바이칼 호에 이르는 판도를 이루었으나, 840년에 강력한 유목민족인 키르키즈인들에게 수도 카라발가순이 함락되고, 몽골리아의 제국을 빼앗겼다. 그후 위구르인들은 沙州(Sha-chou, 현재의 敦煌), 甘州(Kan-chou, 현재의 張掖縣)부근에 정착했으며, 또 다른 위구르 집단은 타림 북부의 오아시스 지역, 즉 코초(Qocho, 과거의 高昌, 현재의 土魯蕃), 카라샤르, 쿠차 등지에 중심을 두고 제 2의 위구르 국가들을 건설하였다⁵⁾.

甘州 回鶻은 1028년에 탕구트(西夏, Tangut)에게 정복되기까지 주권을 유지하였는데, 그들의 복식문화는 탕구트에 전수되었다. 중국 복식문화와 위구르 복식문화가 융합된 양상을 보이던 沙州 回鶻은 1006년에 契丹에게 종주권을 빼앗겼다. 850년경에 건국된 西州 回鶻은 高昌 回鶻, 阿薩蘭 回鶻⁶⁾등으로도 불리웠는데 13세기에 몽골족이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⁷⁾. 10세기에서 11세기에 최성기에 달하여 동으로는 河西走

廊, 서로는 龜茲에 미쳤으며 북으로는 天山山脈을 넘어 准噶爾(준가리아) 분지의 남쪽 경계에까지 이르렀고 남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 于闐에 접하게 되었다⁸⁾. 이란 문화, 중국 문화, 유목 문화가 교차하는 투르판 지역에 중심을 둔 西州 回鶻, 즉 高昌 回鶻은 유목과 농경, 동서 문화를 두루 수용하고 융합한 수준 높은 위구르 문화를 이룩하였다.

III. 복식의 양식

1. 남자의 복식

1) 髮形 및 冠帽

위구르인은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 땅아서 등뒤로 늘어뜨리는 被髮을 했다. 被髮은 突厥의 풍습이기도 했다. [新唐書], 突厥傳에는 突厥의 풍속을 기록하여 “被髮左衽”이라 하였고, 突厥의 石像인 [그림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 [新五代史]에는 위구르의 도독이 可汗을 볼 때 帽을 벗고 被髮하고 들어가 예를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구르인의 被髮은 머리의 중앙에 가리마를 타고 머리카락을 좌우로 나누어 등 뒤로 길게 허리까지 드리웠다. 이마 위의 머리는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림 1] 鳥里鴉蘇臺古碑, 突厥人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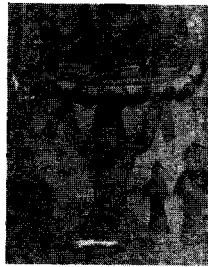
[그림 2] 베제크릭석굴 벽화 回鶻王侯家族群像

긴 머리카락은 가닥 가닥 땅아 늘었다. [그림 2]의 하단에 묘사된 몇명은 앞머리를 이마 위에 내리고 있으며, 귀밑 머리 두가닥을 어깨 앞쪽으로 늘어뜨렸다. 이것은 [그림 3]에 보이는 공양동자상의 髮形과 흡사하며 [그림 4]에 묘사된 동자의 머리모양과도 유사하다. 머리카락의 일부만 남기고 삭발한 머리 모양은 [그림 11]의 좌우에 작게 묘사된 동자를 비롯하여 여러 회화 자료에 남녀 어린이의 머리 모양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4]의 아이들이 긴 머리를 어깨로 늘어뜨리되 좌우의 귀밑 머리를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 이러한 특징은 미혼자의 髮形으로 생각된다.

위구르 남자들이 착용한 冠帽의 종류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중 高冠, 세 개의 각이 솟은 冠帽, 부채형 冠帽가 있으며, 그밖에 [그림 5]에 보이는 족두리형 冠帽, [그림 6]에 묘사된 桃形冠 등이 있다. 冠帽에는 모두 끈이 달려서 턱에서 묶도록 되어 있는데, 홍색의 끈은 回鶻 귀족



[그림 3] 베제크릭석굴 벽화, 공양자상



[그림 4] 코초출토 藥師如來嚙

남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평민 남자와 구별 짓는 것이었다¹⁰⁾. 관모에 위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는 당대에 조성된 베제클릭 석굴의 벽화로써 벽화는 高昌 回鶻 후기에 다시 그려진 것이다¹¹⁾. 벽화 전체에는 더 많은 공양자가 묘사되어 있으나 [그림 2]에는 모두 16명의 공양자가 보인다. 각 공양자 앞에는「已被抹去」, 「喜悅…」, 「尤依格允斯·托丘爾之像」, 「巴奇蘇奇·塔爾千之像」, 「奧瓦雅·斯利(之像)」, 「獅子賢人…」등 돌궐 인명으로 생각되는 명문이 써여 있다. 이들은 전국의 위구르 王侯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¹²⁾. 이들 공양자는 상단에 8명, 하단에 8명이 배치되어 있다. 상단의 8명은 모두 이중 高冠을 썼으며, 하단의 8명 중 4명은 세 개의 각이 솟은 冠帽을 썼고, 나머지 4명은 부채꼴형 冠帽을 썼다. 인물이 배치된 위치로 볼 때 이중 高冠을 쓴 상단부가 최고 계급, 하단부에서도 세 개의 각이 솟은 冠帽을 쓴 앞쪽에 묘사된 인물이 그 다음 계급, 부채꼴형 冠帽을 쓰고 뒤쪽에 배치된 인물이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된다. 관모의 위계는 이중 高帽, 세 개의 각이 솟은 관모, 부채형 관모의 순이라고 판단된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冠帽 착용 예를 살펴봐도 위의 상황과 일치한다. “존엄하고 신령한 용맹스런 사자인 아르프 아스란(阿爾普 阿廝蘭)의 성스러운 상, 그는 과거에 親王 托丘爾, 親王 于格, 泰坎, 蒼鷹候에게 속해 있는 대제국을 다스린 자”¹³⁾ 라는 명문이 있는 [그림 7]의 주인공은 국왕임을 알



[그림 5] 이덕체리 王宮址發見벽화



[그림 6] 무르록 벽화



[그림 7] 무르록 벽화



[그림 8] 北庭기遺跡벽화



[그림 9] 敦煌 409窟 벽화

수 있다. 이 초상은 帳中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新唐書」卷 二百十七 上, 列傳 第一百四十二 上, 回鶻條에 “可汗胡帽 袍坐帳中”이라는 설명과 대비해볼 수 있다. 「新唐書」에 기록된 可汗이 쓴 ‘胡帽’는 어떤 특정한 冠帽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중국에서의 胡의 의미는 단지 중국의 것이 아닌 서역의 것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7]의 인물이 착용한 冠帽은 중국제가 아닌 위구르계로서 「新唐書」에 기록된 胡帽라고 생각된다. 이 冠帽가 唐代的 官服 중 介幘이 발전한 산물이라는¹⁴⁾ 沈從文의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高昌 回鶻의 夏宮이 있던 北庭유적지의 佛寺 벽화인 [그림 8]의 명문에는 “신성한 亦都護(I-tu-hu)의 像 長史, 公主”라고 써어 있다. 亦都護(I-tu-hu)는 투르크의 왕, 또는 투르크판의 토착군주를 뜻하는 iduqut, idiqu를 나타내는 말¹⁵⁾ 왕과 왕비의 부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왕이 쓴 冠帽 역시 이중 高冠으로서 이것은 可汗을 비롯한 王公 계층의 최고 冠帽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9]는 西夏시대의 돈황 409窟 벽화 동벽 남측의 西夏王 공양도¹⁶⁾이다. 高冠을 쓴 왕을 따르는 시

종들은 부채형 冠帽을 쓰고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冠帽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하단의 8인 중 4인이 쓴 세 개의 각이 솟은 冠帽는 불교의 三爪僧



[그림 10] 이덕제리 王宮址發見 벽화

標와 유사하며¹⁷⁾, 樂人이 착용한 예를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확실한 신분은 알 수 없으나 불교도일 것으로 추정되는 공양자가 쓴 예를 [그림 11]에서 볼 수 있다. 위구르 왕궁 유적에서 발견된 벽화 단편인 [그림 5]에서는 시종으로 생각되는 인물이 착용한 족두리형 冠帽를 볼 수 있다. [그림 6]에 보이는 桃形冠은 여자들의 冠帽로서 남자가 쓴 것은 아주 예외적인 예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착용 예로 미루어 볼 때 관모에는 이중 高冠, 세 개의 각이 솟은 冠帽, 부채형 冠帽·족두리형 冠帽 등의 순서로 위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의복

10세기 말, 宋의 王延德이 황제의 사절로 위구르의 수도 高昌을 방문한 후 기록한 「高昌行紀(使高昌記)」에 高昌 귀족의 복장은 筒袖의 長衣 위에 帶를 띠고, 허리에 여러가지 물건을 매달았는데, 이것은 유목시대의 유품이고, 머리에는 冠을 썼다고 하였다. 당에서는 위구르인들이 漢族에 동화하고, 고급 문화를 흡수하려는 적극적인 문화적 자구책에 제동을 걸기도 하여 799년에는 위구르인이 중국 복장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금령을 내리기도 하였다¹⁸⁾.

「新唐書」에는 可汗의 복장에 대하여 “可汗胡帽絺袍”라고 하였다. 袍에 대해서는 色 만을 설명하였고 冠帽는 胡帽라고 하여, 冠帽는 위구르식이지만 포의 형식이 중국식일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여러 벽화에 묘사된 의복은 唐에서 武人 혹은 일반인이 착용하던 缺袴衫과 흡사한 袍이다. 왕으로 여겨지는 [그림 7], [그림 8], [그림 9]의 인물들은 盤領의 窄袖長袍를 입었다. 이들이 착용한 袍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점은 圓紋이다. [그림 7]의 圓紋 안에는 회룡문 또는 유운문으로 여겨지는 C자형 곡선이 원의 중심에 머리를 맞대고 배치되어 있다. 고대



[그림 11] 코초출토 繪幡

중국인에게 정신 생활의 기초가 되었던 天과 관련된 용문양이 왕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9]에는 圓龍文으로 나타나 있다. 모두 허리에는 대를 띠고 여러가지 물건을 느렸다.

[그림 11]에 묘사된 인물이 착용한 의복 역시 盤領의 窄袖長袍로서 소재는 錦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南史]에 기록된 “蕃客錦袍”로서 成都의 錦工房에서 생산되어 위구르, 티벳 등에 下賜된 것이다¹⁹⁾. 「新唐書」卷二百十七上, 列傳 第一百四十二上, 回鶻條를 보면, “天子方招龍遠夷作絳黃瑞錦文袍寶刀珍器賜之”라고 하여 중국의 천자가 寶刀, 珍器 등과 더불어 絳黃瑞錦文袍를 夷族에게 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이 착용한袍는 대개 錦으로 된 것이어서 위구르인들이 錦을 즐겨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의 沙利家族人像에 보이는袍 역시 錦袍이다. 길이는 발목을 덮을 만큼 길고, 양옆이 터져있으며, 盤領에 窄袖를 특징으로 한다. 제일 오른쪽에 선 인물 앞에는 “沙利吐突克布拉”이라는 명문이 있다. 그것은 布拉格 沙里都督(Bura Sali Tutug)을 나타내는 것으로 高昌에서 장기간 영화를 누린 위구르의 名族 사리家の 일원으로서 都督을 지낸 자를 가리킨다²⁰⁾.

袍의 길이는 발목을 덮을 만큼 긴 長袍가 많지만 무르투크 벽화인 [그림 1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무릎 길이의 것도 있었다. 王延德이 高昌 귀족 의복의 특징을 筒袖의 長衣로 들었던 바와 같이袍의 길이는 신분에 따라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후기의 의복에는 이전과 달리袍에 襪을 댄 모습



[그림 12] 베제크릭석굴벽화
沙利家族人像



[그림 13] 무르투크 벽화

이 나타난다. 高昌 回鶻 晚期 벽화인 [그림 2]에는袍의 선단, 도련, 수구에 襪이 대어져 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복식에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속디아나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므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포를 입은 실루엣은 이전보다 가늘고 길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복식 형태상의 변화라기 보다 표현 양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육체와 그밖의 용모를 신장화시키는 속디아나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미술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3) 耳環, 鞞帶, 長靴

위구르에서는 남성들도 耳環을 하였다. 간혹 耳環을 하지 않은 초상도 볼 수 있지만 耳環을 걸지 않은 귀에는 耳環을 걸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袍 위에 帶를 띠고, 帶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매달았으며, 長靴을 신어서 유목민족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였다. [그림 12]의 세 인물은 모두 허리에 띠 帶에 여러가지 물건을 매달고, 장화를 신었다. 帶에 물건을 매달아 늘이는 풍습은 鞞帶라 하여 중국에 전해졌고, 위구르가 세력을 넓히기 전부터 중국 文武 官員의 服飾에 도입되었다. 청동기 시대부터 중앙아시아의 석인상은 대를 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몽골, 돌궐, 여진족 등의 선조들은 버클이 있는 帶에다 무기와 생활용품 등을 매달아 사용하였다. 유목생활의 여건상 말의 다리나 입을 묶는 끈, 부시들, 수들, 작은 물건을 집어넣는 자루 등 생활필수품들이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는 이것들을 매달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편리한 곳이 된다. 특히 전쟁터로 떠나는 군사들은 칼, 화살통, 활집 등을 대에 매달았다. 그러므로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 대는 중요한 것을 휴대하는 물품이었고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²¹⁾.

帶鉤가 있는 帶, 즉 鈎帶는 북방 유목 민족의 裝束이며, 帶에 鞞帶²²⁾을 더한 鞞帶 역시 북방 유목 민족의 裝束이다. 沈括은 「夢溪筆談」에서 “帶에 있는 鞞帶는 弓, 劍, 粉帳(수건류), 算囊, 刀, 礪 등을 佩帶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鞞帶는 없어졌고 다

만 鞞帶를 묶기 위한 環만 남아 있다. 環은 지금의 帶鈎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宋史」 儀衛志에 鞞帶의 制度를 설명하면서 鞞帶는 革帶의 環이라고 하였다. 古代에는 帶의 校具를 環形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校具 위에도 고리를 달기도 했기 때문에 李衛公이 「故物記」에서 말한 것처럼 環帶라고도 하였다. 隋, 唐 이후에는 常服의 帶를 環帶라 하고 袴褶服의 帶를 起梁帶라고 하였으며, 唐 중엽 이후에는 環이라는 용어 대신 鈎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²³⁾.

魏晉南北朝 시대에는 革帶에 透彫한 金銀 장식판을 붙인 鏤帶가 있었다. 鏤帶에 부착된 장식판은 장식일 뿐이었으나 鏤帶에서 발전한 첩첩대는 일상용구를 걸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었다²⁴⁾. 唐代에는 文武官員이 鞞帶를 띠고, 七事를 매달도록 하였다. [舊唐書] 輿服志에서는 七事를 “七謂佩刀, 刀子, 礪石, 契苾, 眞噦厥, 針筒, 火石袋等也”로 설명하고 있다. 鞞帶는 여러가지 휴대품을 걸기에 안성맞춤이지만 唐에서 유행한 鞞帶는 본래의 실용적 의미보다도 장식성이 커졌다. 七事を 늘이는 대신 끈만 여러 가닥을 늘여서 장식의 용도로 착용하였으며, 여자들 사이에도 유행하였다.

2. 여자의 복식

1) 髮形 및 冠帽

위구르의 옛 이름인 高車의 풍속에 부인은 양의 발목뼈를 가죽으로 싸서 머리 위에 얹고, 열기설기 엮은 머리로 둘러싸서 매단 것이 초헌과 면류관 같다²⁵⁾는 기록이 있다. 위구르 여자들의 髮形 및 冠飾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부인은 머리를 묶어서 5, 6촌 높이로 髻를 만드는데, 紅絹囊을 하며, 결혼하면 髻帽를 얹는다고 하였다²⁶⁾.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머리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한 예가 “喜悅公主전하의 상”이라는 명문이 있는²⁷⁾ [그림 14]로서 왕녀는 머리 좌우에 크게 계를 맺고 여러개의 비녀를 꽂았으며, 나무가지, 구름, 새 등의 吉祥文으로 장식했다. 머리 뒤로는 붉은 천을 늘여서 紅絹囊을 한다는 기록과 부합된다. 엉덩이 부분에서 한번 묶어 주어주고 길게 바닥까지 내려뜨렸다. 기록에 보이는 전모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공주는 정면과 뒷면이 꺾여 올라와서 한마리의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듯한 형상을 한 冠을 썼다. 唐의 太和公主가 위구르로 시집가는 장면이 기록된 「舊唐書」에는 太和公主가 당의 의복을 벗고 위구르의 의복으로 갈아 입으면서 쓴 冠帽를 “金飾冠, 如角前指後”²⁸⁾ “金冠, 前後銳”²⁹⁾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喜悅公主가 쓴 冠帽의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구르 왕녀는 [그림 15]에 보이는 바와 같은 桃形步搖金冠을 썼다.



[그림 14] 베제크릭석굴 벽화
喜悅公主像



桃形步搖金冠은 투르판 [그림 15] 무르투석굴
뿐만 아니라 敦煌 지역에도

많이 묘사되어 있다. 原田淑人은 이러한 형태의 冠飾에 대하여 중국의 花釵冠이 서쪽으로 전해져서 지방화한 것이라고 보았고, 위구르 여인이 착용한 桃形步搖金冠 역시 敦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步搖 장식은 중국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모의 기본 양식은 위구르적이다. 위구르 양식이 敦煌 지역에 나타나면서 중국적 요소가 융합된 한 예로 여겨진다.

돈황 지역의 벽화에 보이는 回鶻 여인의 髮形은 투르판에서 볼 수 있는 高昌 回鶻 여인의 머리 모양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高昌 回鶻 여인은 대개 머리 좌우에 크게 계를 맺는데 비하여 돈황 지역의 回鶻 여인의 髮形은 아주 단순하다. [그림 16]은 敦煌 61窟 동벽남측의 벽화로써 8명의 공양자가 묘사되어 있다. 돈황 61窟은 오대에 曹議金(936년 작고)의 아들인 曹元忠과 그 부인이 조영한 것으로 조씨가의 여자 공양자 49명과 3명의 비구니가 그려져 있



[그림 16] 敦煌61窟 東壁腰壁南側벽화

다³⁰⁾. [그림 16]의 좌측의 두 여인은 高昌 回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桃形步搖金冠을 썼다. 좌측의 첫 번째 인물 앞에는 “故母北方大廻鶻國聖天の子勅授秦國天公主隴西李氏”라는 명문이 있어서 그가 曹元忠의 모친이자 甘州 回鶻 可汗의 딸로서 曹議金의 부인인 것을 알 수 있다³¹⁾. 위구르는 漠北에서 흥하여 聖天可汗이라고 칭했지만, 安史의 난때 唐朝를 도와 출병하였으므로 그 공으로 唐 王室로부터 이 씨성을 받고 隴西李氏라고 하였다. 좌측의 두 번째 상 앞에는 “姉甘州聖天可汗天公主一心供養”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그가 曹元忠의 누나이자 曹議金의 딸임을 알려준다. 명문 중의 “天公主”는 可汗의 妻의 호칭이어서 甘州 回鶻 可汗에게 시집간 것을 알 수 있다. 좌측의 두명이 쓴 冠帽는 甘州 回鶻 양식이다. 세 번째 인물도 曹元忠의 누나이며 曹議金의 딸이다. 명문에 “姉大朝大于闐國大政大明天册全封至孝皇帝天皇后一心供養”이라고 있어서 시집가면서 于闐王 李聖天의 황후가 된 인물임을 알려준다³²⁾. 그가 쓴 冠帽는 다른 이들의 것에 비하여 보다 크고 장식적인데, 回鶻 양식을 기본으로 한 于闐 양식으로 생각된다. 계속해서 뒤에 선 5명에게는 “故慈母勅授廣平郡君太夫人宋氏”, “故姉譙懸夫人(翟씨에게 출가)”, “故姉譙懸夫人(陰씨에게 출가)”, “姉譙懸夫人(鄧氏에게 출가)”, “故姉譙郡夫人(翟씨에게 출가)”라는 명문이 있다. 모두 다 曹元忠과 그 부인의 입장에서 母 또는 姉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들이 쓴 冠帽는 중국의 요소가 융합되어 돈황화한 回鶻 양식이라고 생각된다. 8명의 공양자가 쓴 冠帽의 기본 형태는 桃形이지만 장식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림 17] 베제크릭석굴벽화 貴婦禮佛像



[그림 18] 베제크릭석굴벽화 供養子像

그 차이는 계급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 혹은 출가한 지역과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7]은 베제크릭 석굴 벽화이지만 중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唐風으로 머리를 높고, 크게 맺었으며, 冠帽라고는 할 수 없는 머리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귀부인을 따르는 시녀는 머리를 양쪽으로 나누어 묶은 대칭적인 雙Y鬢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대 소녀들 사이에 유행하던 것이다. 생김 (勝金口, Sengim-Aghis) 벽화에도 [그림 17]의 귀부인과 비슷한 髮形으로 묘사되어 있다. 좌우로 크게 곁을 맺고 冠帽를 쓰는 回鶻 여성의 머리 양식과 더불어 당풍도 존재하였음을 알려준다.

후기에는 관모의 형태가 작아졌다. 高昌 回鶻 晚期 벽화인 [그림 18]에 보이는 바와 같이 冠帽가 작아졌지만 기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 의복

다른 민족 복식에 있어서도 대체로 여자 복식은 남자 복식에 비하여 고유의 전통이 잘 남아있다. 위구르의 여자 복식 역시 중국복식과는 다른 위구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翻領이 특징적이다. [그림 14]에 보이는 喜悅公主는 목둘레선이 등근 붉은 색의 網狀의 의복을 입었고, 그 위에 발을 덮을 만큼 길지만 몸에 아주 꼭 맞는 겹옷을 입었다. 겹옷의 깃은 翻領이며,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伊爾凱米什公主”라는 명문이 씌어 있는 [그림 19]의 인물이 착용한 복장도 喜悅公主가 착용한 것과 동일하다. [그림 8] 역시 공주라는 명문이 있는 北庭 유적의 벽화로서 喜悅公主와 동일한 의복



[그림 16] 敦煌61窟 東壁腰壁南側벽화

을 입었으며 겉옷에는 원문이 장식되어 있다. 唐의 太和公主가 回鶻로 시집갈 때의 상황을 기록한 「舊唐書」에 의하면 公主가 唐服을 벗고 胡服을 입을 후에 다시 絳色の 可敦(可汗의 처)服으로 갈아 입는데, 그것은 紫色을 띤 赤黃色의 通裾大襦³⁰⁾라고 되어 있다. 그림에 묘사된 의복의 특징은 문헌에 나타난 의복의 특징과 일치한다.

후기의 여자복식은 깃의 형태가 翻領에서 盤領으로 변화되었다. 高昌回鶻 晩期에 그려진 벽화에는 [그림 20]에 보이는 바와같이 옷깃이 翻領이 아니라 盤領이며, 깃, 도련, 팔뚝에 襖장식이 되어있다. [그림 21]의 공양자들도 모두 동일한 형식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그림 18]의 공양자는 깃, 도련, 팔뚝에 襖

장식을 한 盤領의 襦를 입었다. 袍가 아닌 襦를 입었으므로 하의로 袴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여자복식도 남자복식과 같이 襦와 袴의 二部式임을 알 수 있다.

위구르의 복식 양식은 敦煌지방에서도 접할 수 있다. 위구르의 세력이 커지면서 敦煌지방에 위구르인들이 많은 석굴을 조영하였고, 벽화에는 위구르 풍속이 묘사되었다. [그림 16]에 묘사된 바와 같이 洞窟 벽화에 보이는 위구르의 복식 양

식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高昌 回鶻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翻領의 長袍가 보다 넉넉해진 형태로서 甘州 回鶻의 복식 양식이며, 또 하나는 裙襦大袖의 중국 禮服으로 沙州 回鶻의 복식양식이다. 가슴 위까지 올라오는 裳을 襦 위에 입고 소매 폭이 넓은 衣를 입었으며, 그 위에 披를 걸쳐서 중국 복식의 영향을 잘 드러낸다. 의복은 晩唐의 복식 양식을 연상시키나 장식은 위구르적이다.

3) 화장, 장신구

[그림 16]의 벽화에 보이는 여자들은 커다란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뺨과 이마에 화장을 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洞窟 벽화에 묘사된 여자 공양자들은 花鈿 장식을 강하게 하였다. 이것은 高昌시대부터 있던 투르판 양식으로서 당시 梅花粧이라고 하여 중국에서도 유행하던 것이다.

유목민족이 애호하는 장신구 중의 하나인 耳環장식을 위구르에서는 남녀 모두가 했는데 유목 민족의 풍속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洞窟 지역에 묘사된 위구르 여인들은 투르판의 위구르 여인들과는 달리 커다란 목걸이를 했다.

3. 주변 민족 복식과의 관계

高昌 回鶻 晩期에 조성된 베제크릭 벽화나 토옥(吐峪溝, Toyuk)벽화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위구르의 복식과는 다른 양식이 나타난다.

[그림 22]의 여인은 몽고 여인의 특징적인 冠帽인 顧姑冠을 쓰고 있으며, 直領 交衽의 衣를 입었다. 또한 [그림 23], [그림 24]의 베제크릭 석굴에 묘사된 공양자들의 용모와 복장은 위구르인과 다른 특징을



[그림 20] 베제크릭석굴벽화



[그림 21] 무르특출토 觀音變相



[그림 22] 베제크릭 석굴벽화



[그림 23] 베제크릭석굴벽화



[그림 24] 베제크릭석굴벽화



[그림 25] 元世祖像

보인다. 이 벽화의 명문에는 위구르 문자로 투르크인 이름이 쓰여 있는데³⁰⁾, [그림 23]의 인물을 같은 투르크인 시주자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盤領의內衣를 입고 그 위에 直領袍를 입었으며 袍 위에 褰肚 같은 것을 덧입고 革帶를 들렀다. 褰肚의 끝은 세자락으로 갈라진 것이 많으며, 革帶의 좌우에는 小刀, 수건 등을 매달았다. 袴 위에는 長靴을 신었고 쓰개는 머리 뒤를 덮는 頭巾型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용모 및 쓰개는 元世祖像인 [그림 25]와 동일하며, 元代 熱河赤峯元寶山 出土壁畫인 [그림 26]과도 유사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림 23], [그림 24]의 시주자들은 蒙古人으로 판단된다. 蒙古族는 中國을 1세기 이상 지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 등장 이전의 역사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蒙古라는 말은 원래 민족 혹은 부족의 명칭으로서 「舊唐書」에는 北魏 때 조공했던 室韋族의 일파인 室韋 蒙兀로 기록되어 있다³¹⁾.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기록



[그림 26] 熱河赤峯元寶山出土壁畫

되었으며 蒙古란 용어로 통일된 것은 清代 이후이다. 蒙兀室韋는 지역적으로 위구르와 인접해 있었으므로 위구르 지역에 석굴을 조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벽화에 보이는 복식양식은 위구르 복식의 변화라기 보다는 다른 민족 즉 몽고의 복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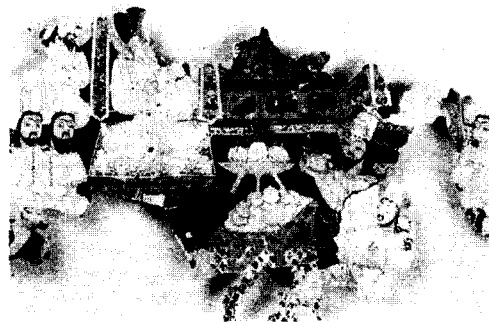
4. 종교 복식

위구르인들 사이에 신봉되던 종교는 摩尼教, 佛教, 景教(네스토리우스派 그리스도教) 등이다. 오르쿤제국 시기에는 마니교를 신봉하였지만 서천한 이후로 고창 회골의 왕실은 불교로 개종하였다. 하지만 투르판에는 여전히 마니교 공동체가 번성하였다. 마니교도와 경교도의 복장은 위구르인의 일반적인 복장과 다른 특징이 나타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종교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摩尼教 복식

摩尼教는 可汗을 위시한 위구르 귀족들이 신봉하여 위구르에 널리 퍼졌다. 위구르는 摩尼教의 포교에 큰 역할을 했던 속드인들로부터 摩尼教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속드인 摩尼教 성직자는 위구르 可汗의 정치, 문화 고문으로서 국정에 참가하여 많은 영향을 미쳤고, 唐과의 교섭을 담당하기까지 하였다.

코초의 摩尼教 사원에 남아있는 벽화 단편, 摩尼教경전 등을 통하여 위구르의 摩尼教徒 모습을 알 수 있으며, 위구르 고유의 풍속과 속드인을 통하여 받아들인 풍속이 위구르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7]은 코초에서 발견된 8~9세기 경의 摩尼教 경전 단편이다. 왼편에는 흰색 盤領袍를 입은 인물들이 세로방향으로 구획되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다. 인물들은 모두 백색의 盤領袍를 입었으나 冠帽를 달리 착용하고 있다. 제일 위층 인물들 머리에는 頭光이 그려져 있고, 둘째 층의 인물들은 백색으로 된 巾形 高冠을 썼으며, 세째 층의



[그림 27] 코초출토 摩尼教 경전 단편



[그림 28] 코초출토 摩尼教 경전 단편(좌)



[그림 29] 코초출토 景教 경전 단편(우)

인물들은 위가 둥근 白色 冠을 썼다. 앉아 있는 층에 따라서 冠帽가 달라지는 것은 성직자의 등급에 따른 구분이라고 생각된다. 코초 출토의 경전 단편인 [그림 28]에 나타난 성직자는 [그림 27]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백색의 盤領袍를 입고 백색의 巾形高冠을 썼다. 이러한 차림새는 가장 보편적인 마니교 성직자의 복식으로서 위구르에서 착용하던 盤領袍를 착용하되 흰색 위주로 하였으며, 쓰개는 摩尼教의 형식에 따라 착용한 것 같다. 摩尼教는 조로아스터교를 모태로 하여 그리스도교, 바빌로니아의古종교, 그리스 철학의 일파인 크노시스, 불교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절충하여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적응성이 풍부하여 각지의 토착 종교와 타협하여 널리 받아들여진 바와같이³⁶⁾ 복식면에서도 토착인과의 절충이 잘 이루어져 착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구르인 시주자들은 일반적인 위구르 복장을 하였으나 冠帽는 위구르의 것 외에 중앙아시아적 특징을 지닌 冠帽도 썼다.

2) 景教 복식

9세기말로 추정되는 코초 출토의 景教 사원 벽화인 [그림 29]에는 여러가지 복장 양식이 보인다. 아리아계 인물로 보이는 사제는 盤領袍 형태의 긴 袍를 입고, 그 위에 술 형태의 聖衣를 걸쳤다. 신도로 생각되는 인물들 중 남자는 袍 위에 翻領의 外被를 팔을 끼지 않은 채 걸쳐 입었는데, 이것은 唐에서도 胡風으로 유행하던 것이었다. 여자는 高髻에 襦, 裳을 입고, 帔를 걸치는 전형적인 唐代 여성의 차림을 하였다. [그림 30]도 동일한 코초 출토의 景教 사원 벽화로서 [그림 29]의 여자가 唐代 여성의 차림을 한

것과는 달리 [그림 30]의 인물은 주름 잡힌 裳 위에 盤領袍를 입고, 岐頭履를 신었으며 머리는 被髮한 독특한 형상이다. 여자들이 盤領袍를 착용할 때는 袴를 입어서 완전히 남장을 하거나 아니면 裳 위에 襦를 입는 것이 보통이나 여기에서는 男裝도 아니고 女裝도 아닌 복합적인 옷차림을 하였다.

摩尼教徒의 복장이 위구르 전통 양식에 충실했던 것에 비하여 景教徒의 복장은 西域의 영향을 받은 唐의 복장과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 景教 미술이 서방의 시리아와 비잔틴 작품과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이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한 Mario Bussagli의 견해³⁷⁾처럼 복식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0] 코초출토 景教 경전 단편

IV. 결 론

복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髮形과 冠帽로서 위구르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남자들은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몇가닥으로 나누어 땅은 被髮을 하였으며, 계급에 따라서 이중 高冠, 세 개의 각이 솟은 冠帽, 부채형 冠帽의 순으로 관모를 달리하여 착용하였다. 여자는 머리를 묶어서 5, 6촌 높이로 髻를 만들고 紅囊을 하였으며, 결혼하면 髻帽을 엮었다. 가장 보편적인 冠帽는 桃形步搖金冠으로서 지역에 따라서 장식에 차이를 보였다. 高昌 回鶻의 桃形步搖金冠을 기본으로 볼 때 甘州 回鶻은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었으며, 沙州 回鶻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步搖 장식이 강화되어 있었다. 정치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이던 甘州 回鶻에 비하여 중국의 영향력이 컸던 沙州 回鶻에 중국복식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준다.

남자는 唐에서 武人이나 일반인이 착용하던 缺

袴衫과 같은 양식의 盤領袍를 입었으며, 대개 錦織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袍 위에는 鞞帶를 하였고 長靴를 신었다. 위구르의 鞞帶는 唐에서도 유행하여 服制化되었으며, 민간인과 부녀자들 사이에는 장식품으로 유행하였다.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위구르 고유의 전통을 간직한 通裾大襦의 袍를 입었다. 깃은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翻領이 특징이다. 후기의 남녀 의복에는 모두 깃, 도련, 수구에 襪장식이 생겼으며, 여자 의복의 깃의 형태는 翻領에서 盤領으로 변화되었다.

高昌 回鶻 晩期에는 위구르의 복식 양식과 다른 몽고 양식이 나타났다. 위구르인이 몽고 복식을 채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몽고족 자신이 그들의 복식을 입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몽고족이 역사 위에 대두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摩尼教徒의 복식은 토착인과의 절충을 잘 이루는 摩尼教 본래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의복은 위구르 본래의 것을 착용하되 색과 冠帽는 摩尼教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景教徒의 복장은 唐에서 유행한 서역 복식과 유사하다. 景教 미술이 서방의 시리아와 비잔틴 작품과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이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과 경교도의 복식은 맥락을 같이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소현(1999), “투르판(吐魯番, Turfan)의 복식에 관한 연구 - 고昌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 23(2), 208-219
- 2) 羽田亨(1992), 西域文明史概論, 西域文化史(東京; 平凡社), 114쪽.
- 3) 回紇은 높은 車輪을 이용하는 풍속으로 인하여 元魏 시기에 高車部라고 불리웠다. 후 勅勒이라고도 했는데, 勅勒은 訛傳되어 鐵勒이라고도 했다: 新唐書 卷二百十七 上, 列傳 第一百四十二 上, 回鶻, 文獻通考 卷三百四十七, 四裔考 二十四, 回紇. 高車는 중국의 관용적인 명칭이며, 실제 이름은 勅勒(Turk)이다. 勑勒 외에도 鐵勒, 丁零, 狄歷, 突厥 등으로 불리워 지는데, 이것은 모두 Turk語로 용감을 나타내는 음역 한자이다: 松田壽男(1970), 「古代天山の歴史地理學的研究」, 434쪽.
- 4) 護雅夫(1992), 「中央ユーラシアの世界」(東京; 山川出版社), 243쪽.
- 5) 르네그루셰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1998), 「유라시아유목제국사」, 사계절출판사, 197-200쪽.
 룩 칸텐 지음, 송기중 옮김(1990),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93-94쪽.
- 6) 阿薩蘭은 arslan, 즉 사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10-11세기에 투르크어를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Haneda Akira(1978), “Acta Asiatica 34”, The Toho Gakkai, p.6.
- 7) 이희수(1993), 「터키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02-3쪽.
 르네 그루셰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1998), 197-200쪽.
 룩 칸텐 지음, 송기중 옮김(1990), 94-98쪽.
- 8) 中國壁畫編纂委員會編(1990), 「中國美術分類全集, 中國壁畫全集 6 - 新疆·吐魯番」, 3쪽.
- 9) 「新五代史」, 四夷附錄, 第3, 回鶻條, “去帽被髮而入以爲禮”
- 10) 李肖冰(1995),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新疆人民出版社, 172쪽.
- 11) 中國壁畫全集編纂委員會編(1990), 59쪽.
- 12)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編(1989), 「中國美術全集-繪編 16 新疆石窟壁畫」, 83쪽.
- 13)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編(1989), 「中國美術全集-繪編 16 新疆石窟壁畫」, 93쪽.
- 14) 沈從文(1992), 中國古代服飾研究-增訂本(香港; 商務印書館), 304쪽.
- 15) Haneda Akira(1978), p. 6,
 르네그루셰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1998), 196쪽.
- 16) 中國石窟-敦煌莫高窟 五, 敦煌文物研究所 編, 平凡社, 1982, 圖135.
- 17) 中國美術全集-繪編 16(1989), 83쪽.
- 18) 資治通鑑 卷225, 唐紀 41, 代宗大曆14年
- 19) 杉本正年(1979), 「東洋服裝史論考: 古代編」, 文化出版局, 225쪽.

- 20) 新疆藝術, 1992年 6期, “伯孜克里克石窟第20窟的供養圖與榜題”; 李肖冰(1995), 172쪽 재인용.
- 21) 테바이에르지움, 박원길옴김(1994), 몽골석인상의 연구(서울: 도서출판 혜안), 82, 83, 91쪽.
- 22) 「集韻」, “鞞蹀, 帶具也”. 「玉篇」, “鞞, 鞞鞞, 鞞具也”. 王國維는 「舊唐書」, 「新唐書」의 鞞鞞, 「隋書」의 鞞, 「唐六典」의 鞞 등으로 기록된 것이 모두 七事を 매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 23) 王國維, “胡服考”, [觀堂集林] 卷 第 18.
- 24) 周迅, 高春明(1988), 「中國歷代婦人裝飾」(三聯書店有限公司), 260쪽.
- 25) 文獻通考 卷三百四十二 四裔考 十九 高車, “婦人以皮麥羊散戴之, 首上綖屈髮髻一所 交反一而綴之有似軒冕”
- 26) 「新五代史」, 四夷附錄, 第3, 回鶻條에는 “婦人總髮爲髻, 高五六寸, 以紅絹囊之, 既嫁則加氈帽”.
- 27)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編(1989), 87쪽.
- 28) 舊唐書 卷 二百九十五, 列傳 第 一百四十五 迴鶻條.
- 29) 新唐書 卷 二百十七 下, 列傳 第 一百四十二 回鶻條.
- 30) 中國石窟—敦煌莫高窟 五, 敦煌文物研究所 編, 平凡社, 1982, 圖79.
- 31) 앞 글.
- 32) 앞 글.
- 33) 「舊唐書」卷 二百九十五, 列傳 第 一百四十五 迴鶻條 “公主始解唐服, 而衣胡服, 以一嬪侍, 出樓前西向拜可汗坐而視公主, 再俯拜訖復, 入氈幄中解前所服, 而被可敦服絳, 通裾大襦, 皆茜色, 金飾冠, 如角前指後”
- 34) 國立中央博物館編著(1992), 「실크로드의 미술」, 한국 박물관회, 237쪽.
- 35) 「舊唐書」, 卷 199 下, 列傳 第 149, 北狄, 室韋條.
- 36) 前嶋信次·加藤九祚(1975), シルクロードの事典(芙蓉書房), 19쪽.
- 37) Mario Bussagli 著, 權寧弼 譯(1978), 「中央아시아繪畵」, 일지사, 137쪽.